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319호 【루계 제25097호】 주체104(2015)년 11월 15일 (일요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주체혁명의 성지 백두대지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높이 일떠세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장식하는 대경사를 안아온 영웅청년들과 건설자들이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았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백두청춘들의 애국충정의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가장 값높이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뿌리가 내린 백두대지의 건설장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는 그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식료품들을 보내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솜동복과 겨울내의, 털신발을 비롯한 갖가지 생활용품들을 보내주시는 다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은 북방의 혹한속에서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쓰시는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며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서 백두청춘의 위용을 힘차게 떨쳐나갈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13일과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건설자들, 일군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는 우리 청년들을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내세워주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전구의 전사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모든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백두산대국의 존엄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김정은제일결사대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끊임없이 빛내이시며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육친의 정이 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정책관철의 맹장, 시대의 영웅으로 자랑떨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는 믿음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대지의 전투장마다에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불굴의 기상과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시대의 앞장에서 혁혁한 위훈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에서의 기적적인 성과로 맞이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와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양어와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성과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우리 식의 먹이첨가제들을 개발, 생산공정 확립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최근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나라의 양어와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먹이첨가제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완성하고 생산공정을 확립해놓았다.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축산물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하는 귀중한 과학적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먹이첨가제문제를 해결하며 메기의 생육기일을 줄이고 사료단위를 떨구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연구소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몇년전부터 진행해오던 우리 식의 먹이첨가제개발과제를 단 몇달동안에 해제낄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긴장한 연구의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일군들이 언제나 과학자들속에 들어가 개발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면서 그들을 성공에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갈 불같은 일념안고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조개가면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특히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심장마다에 조아박은 유전공학연구실의 과학자들은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끝끝내 제품개발을 성공시켰다. 이와 함께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 걸을 때 일행천리하라!》라는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중간시험단계와 생산공정확립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필요한 설비들의 설계와 제작을 책임적으로 맡아 수행하면서 두달이상 걸려야 한다던 조립을 보름동안에 해제끼고 시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생산한 이들은 지난 10월 평양메기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새로 개발된 먹이첨가제들의 경제적효과성은 대단히 높다.

같은 량의 먹이를 가지고 물고기와 집짐승의 증체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반면에 사료단위를 기준보다 더 낮출수 있게 한다. 또한 항산화능력이 대단히 높은 물질의 생성과 항체의 산생을 촉진시켜 물고기와 집짐승의 면역력을 훨씬 높여줄수 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와 산소결핍저항능력을 높여주고 성장발육, 물고기알의 성숙을 촉진시키며 양어와 축산에서 생산되는 해당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등 리용가치가 매우 크다.

과학자들은 이밖에도 장내 병원성균을 구제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것은 물론 먹이의 소화흡수률을 최대로 올릴수 있는 먹이첨가제들도 새로 개발하였다.

지금 당 제7차대회를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들은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우리 식으로 개발한 먹이첨가제들을 생산실천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새로 무은 고기배 《황금해-1》호 진수

흥원조선소에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흥원조선소에서 고기배 《황금해-1》호를 새로 무어 바다에 띄웠다.

10일 현지에서 진행된 진수식에는 강영철수산상, 김봉영 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문, 흥원조선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리재경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지배인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대적이고 성능높은 고기배를 많이 무을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흥원조선소의 로동계급은 배무이전투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로동계급,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창조적열의속에 수많은 설비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되였으며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열정이 남김없이 발휘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신포고기배설계연구소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우리 식 고기배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수산성과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는 배건조에 필요한 많은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 어떤 배도 자체의 힘으로 척척 무어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모든 어선들을 만능화, 현대화된 선박들로 더욱 완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어로전의 모든 전투장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라는것을 명심하고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더 많이 무어내며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지니고 물고기잡이와 배무이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낟알털기를 끝낸 단위들이 늘어난다

각지 농촌들에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쌀로써 받들려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아가는 속에 각지 농촌들에서 낟알털기를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끝낸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태천군 은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과 각지 천수백개의 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끝냈다. 이것은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가기 위해 낟알털기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온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농업성에서는 각지 농촌들에서 올해의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지난해보다 벼가을을 한주일이상 늦게 시작한 조건에 맞게 짧은 기간에 낟알털기를 끝내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벼단실어들이기를 앞세우고 탈곡기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림으로써 매일 낟알털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결과 선천군 석화,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200여개 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경남도에서 200여개의 농장들이 낟알털기를 결속하였다.

함주군 동봉, 정평군 룡성, 금야군 비단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는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고 하면서 로력과 기계수단을 총집중하여 그날그날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낟알털기를 해제꼈다.

평안남도 일군들이 봄내, 여름내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정원군 원화, 개천시 룡진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도안의 백수십개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알곡생산성과로 받들 불타는 열의드높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강원도에서도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원산시, 천내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의 100여개 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합경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높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의 힘을 막을자 세상에 없다는 든든한 배심으로 낟알털기를 다그쳤다. 그리하여 백수십개의 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의 수십개 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날마다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자강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뒤넌에 없는 왕가물을 이겨내며 애써 가꾼 곡식을 한알이라도 허실할세라 낟알털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성과를 거두었다.

낟알털기를 결속한 농장들에서는 다음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애국의 마음안고 전력생산에 큰 힘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수풍발전소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풍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발전소의 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면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을 전력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이 전력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가을철의 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깐지게 하면서 여러 호기의 발전기에 만부하를 걸어 매일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전력생산과 함께 발전설비들을 수리정비 보수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하면서 여러 호기의 발전기들에 대한 수리정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 한편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수력구조물보수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에 계획하였던 수백㎡의 언제대면타입과 언제보수타입, 방수로하단 옹벽보수공사를 10월중순까지 끝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언제점검보수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발전소당조직에서는 혁신자 축하모임과 기동예술선동대 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력생산자들을 위훈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이와 함께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부강원전설을 다그치고있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발전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수천kW의 발전능력 조성

초산군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는 초산군에서 초산청년2호발전소건설이 완공되여 조업을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은 경제적일뿐아니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므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함께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초산청년2호발전소는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이 낳은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군에서는 초산천, 구룡천, 와인천에 수천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해놓음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초산청년1호발전소를 일떠세운데 이어 초산청년2호발전소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었다.

발전소건설지휘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발전소건설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돌격대원들은 수백m의 물길굴을 관통시키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방수로공사, 발전기실건축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돌격대원들과 힘을 합쳐 1년 2개월동안에 구룡천에 방대한 사석언제를 쌓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군의 책임일군들이 언제공사장에 자주 나와 중심강도 작업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면서 발전설비들을 지체없이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웠다. 초산청년2호발전소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지금 이곳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군에서는 초산청년2호발전소를 일떠세운데 만족하지 않고 뜻깊은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초산청년3호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발전설비조립을 끝낸데 이어 얼마전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 초산청년2호발전소에서 –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킬 열의안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깊이 새겨주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생산자대중의 투쟁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1970년대의 경제선동방법을 구현하여 당 제6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였던 총돌격분위기를 온 공장에 세우기 위한 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 제7차대회소식에 접한 공장의 수천명 종업원들이 당원돌격대, 청년돌격대에 망라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떨쳐나 더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터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이 활활 타번지는 속에 날에 날마다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357명의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배출되였고 그중 3명이 4년분 인민경제계획을, 3명이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27명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그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방적종합직장의 청년정방직장, 3정방직장, 련사직장 전투원들이 진격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생산물의 질을 첫자리에 놓고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고있으며 교대가 다음교대를 도와주는 미풍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직포종합직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새 제품생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꾸리고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고있다. 1직포직장과 2직포직장의 모든 직포공들이 종전보다 한두대이상의 기대를 더 맡아 돌리면서도 양성공들을 한몫하는 기능공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10월에만도 맡겨진 계획을 152.4%, 126.1%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위훈자들속에는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있다. 련사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는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일판하게 들어쥐고 내밀어 설비마다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해나감으로써 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모든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누구나 두몫, 세몫의 일감을 처리하는 기풍이 전방종합직장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천생산에서 중요공정을 맡은 책임감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직기마다 만부하의 동음을 울려가고있다. 4직포직장, 1직포직장, 준비직장, 방적직장에서 설비들의 계획적예방보수대책을 철저히 세워 10월계획을 157%, 132%, 158%, 127%로 넘쳐 수행하였다.

염색종합직장과 타올직장, 편직사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매일 생산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드높은 열의밑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윤금찬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과시하는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시라

더 높이 울려라 로동당만세소리

우리는 지금 드넓은 미래과학자거리를 걷고있다.

돌아볼수록 황홀하기 그지없다. 이처럼 희한하고 특색있는 과학자거리가 하늘에서 내려앉은듯 그처럼 짧은 기간에 생겨날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던가.

미래과학자거리에 특색있게 세워진 상징탑이며 층층의 다리로부터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호안을 따라 하늘을 찌를듯 일떠선 초고층, 고층살림집들, 그푼히 갖추어진 각종 상업, 급양,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눈부시게 안겨든다. 그야말로 조선의 문명의 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보는 사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희열을 가슴벅차도록 느끼게 하는 미래과학자거리의 희한한 전경!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응축된 여기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우리는 이 황홀한 선경, 최대의 문명이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소리높이 전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미래과학자거리!

그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한 이 거리는 우리 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에 따라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또 하나의 선경거리이다.

새길수록 가슴찡어든다.

지난 10월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이 천사만사인 국사중에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중시하고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 없는 인민의 락원,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알려면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그토록 격정에 넘쳐 하시던 그 말씀,

과학으로 사회주의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과학의 기관차로 사회주의를 전진시키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그토록 하셔야 할 일, 찾으셔야 할 단위 많고많다시건만 여러 과학연구기지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상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이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최근년간 과학을 중시하는 우리 당의 관심속에 얼마나 많은 웅장화려하고 현대적인 창조물들이 이 땅에 솟아났던가.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미래상점,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하건만 과학자, 교육자들에게 이 세상 제일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었다.

추억도 뜨거운 지난해 5월 흙먼지날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거창한 건설작전을 펼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여, 물어보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들이 살게 될 살림집건설을 위해 직접 건설력량을 조직해주고 찬바람부는 추운 날씨에 비행기를 타고 건설정형을 지도해준적이 있었는가. 거리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형성안들을 지도해주시며 휴식도 잊으신채 헌신하시고 살림집에 놓을 가구와 비품에 이르기까지 마음쓰신 우리 원수님 같으신 위대한 어버이가 그 어디에 또 있었던가.

과학으로 새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순간순간 과학자, 교육자들을 금싸래기마냥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창조자들인 군인건설자들도, 새집들이기쁨으로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고마움에 눈물짓는다.

지금도 지난 2월 들끓는 건설현장에 나오시여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과학자거리를 상징할수 있게 독특하게 일떠세우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격정속에 어려온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힘있게 과시하는 거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건설을 맡은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최상의 문명, 최상의 속도를 창조하겠다는 립장을 가지고 미래과학자거리를 후세에 길이 남을 거리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안겨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이시였기에 미래과학자거리를 건설하면서 리발소, 미용원, 목욕탕은 물론 옷수리, 구두수리 등을 할수 있는 편의시설들, 약국, 식당, 상점, 도서관을 비롯한 의료 및 상업봉사망들과 문화시설들에 대하여서까지 그토록 깊이 마음쓰신것이였다.

세대마다에 공동살림방과 함께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이 손색없이 꾸려지게 되고 곳곳에 휴식터들과 공원들이 멋들어지게 자리잡게 된것도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8월부터 미래과학자거리공사 전기간 건설과 관련하여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신 형성안들만 하여도 수백건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헌신과로고는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는것이였다.

거리의 중심축도 새로 정해주시고 미래과학자거리를 상징하는 주택도 건설하며 건물들의 형식도 지난 시기의 건설방식과는 완전히 새롭게 형성하도록 설계가들의 안목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세심한 지도가 있어 미래과학자거리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선경거리로 일떠설수 있었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며 너무도 만족하시여 태양같이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도 귀기울이느라면 지난 10월의 그날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궁궐같은 살림집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을것이라는 일군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라고 온 거리가 드르릉 울리도록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정세가 평화롭고 모든것이 풍족해서였던가.

적들의 악랄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책동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오고있던 시련의 시기에도 미래과학자거리에서는 창조와 건설의 동음 더 높이 울리였다. 문명하고 휘황할 조국의 미래, 더욱 번영할 조국의 앞날이 귀중하였기에 우리 당은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아낌없이 보장하도록 한것이였다.

우리의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은 미래과학자거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적적으로 일떠세우고 조선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며 매일, 매 시각 기적창조의 신화가 태여나는 나라라는 사실을 시대와 력사앞에 다시금 증명하였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뜻에 떠받들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선경거리—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조국의 문명의 중심인 혁명의 수도 평양시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77호동 3층 1호에 입사한 남다른 영광과 행복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받아안은 행복이 너무도 품만 같아 온밤 잠들지 못하고 거리를 걷고 걸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옹근 하나의 도시와 같은 황홀한 거리,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이 령도자의 발기와 지도밑에 건설되고 이처럼 훌륭한 집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한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쳐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으로 당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싶은 생각뿐입니다.》

하늘높이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하나하나의 건축물마다에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어머니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되여있고 과학으로 번영을 이룩하고 래일을 앞당길 원대한 리상이 빛발치고있어 정녕 쉬이 걸음을 옮길수 없다.

미래과학자거리에 밤이 깊어간다. 밝은 불빛아래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이 울려퍼지는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는 우리 조국의 래일을 다 말하여주고있다.

더 높이 울려가라, 로동당만세소리여!

글 본사기자 백 영 미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밝은 미래 마중가는 거리에서

나의 감탄은 미래과학자거리에 들어설 때부터 시작되였다.

대동강과 나란히 시원하게 뻗은 대도로의 량켠에 우뚝우뚝 솟아오른 살림집들, 폭이 거창하고 종심이 깊은데다 건축물들 하나하나가 독특한 미를 한껏 떨치고 그 멋들이 하나로 잘 어울려 그야말로 새 세기 건축예술의 대화원이 바로 여기에 펼쳐진듯싶었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나는 거리의 한끝에 이르게 되였다.

구름다리우에 세워진 탑이 안겨들었다. 원자핵과 전자의 운동자리길을 형상한 은백색의 탑머리를 우로 올라가면서 넓어진 탑몸이 받쳐주고있었는데 탑몸의 가운데에는 《미래》라는 두 글자가 해빛을 받아 번쩍이고있었다.

미래과학자거리를 상징하는 탑에 새겨진 이 두 글자가 나를 과학과 미래에 대한 생각에로 이끌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제날에 대한 추억을 주는 탑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밝아올 미래를 상징하는 탑은 이곳에만 있는것이 아닐가.

더우기 과학으로 앞당겨올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탑은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해빛밝은 미래과학자거리에서 한 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망망한 대해에 돛을 달고서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두둥실 떠가는 배이런듯 대동강반에 솟아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의 《돛배》 살림집에 깃든 뜻깊은 이야기.

지난해 이 살림집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세계에 앞서나갈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실 확고한 의지를 담으시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과학으로 새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새로 일떠서는 거리이름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여주시였는가를 다시금 깊이 음미해보게 되였다고 한다.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훌륭한 봉사기지가 마련되였을 때에도 그 이름을 《미래상점》이라고 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미래와 과학이라는 개념을 하나로 련결시켜보시며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땅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것, 세계에서 가장 문명하고 눈부신것이 가득 차넘치게 하여 우리 인민모두를 최고의 문명의 주인으로, 향유자로 만드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정녕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시며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일으켜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과학자거리여서 보면 볼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부풀기만 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상징탑,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거리를 상징하는 탑으로만 안겨들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펼치시는 과학중시, 인재중시의 세계속에 《조국찬가》의 구절처럼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래일이 저 탑에 새겨진 《미래》라는 두 글자속에 다 비껴있는것 아니랴.

세계를 굽어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과 포부, 사랑과 믿음속에 하늘로 치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

이 거리에 점도록 서있는 나에게는 우렛소리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닦아주신 과학중시, 인재중시의 대통로를 따라 앞당겨지는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강 원 남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라말라흐

팔 레 스 티 나 국 가 대 통 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팔 레 스 티 나 민 족 당 국 수 반

마 흐 무 드 아 빠 스 각 하

나는 팔레스티나국가선포 2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독립국가창설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11월 14일 평 양

령도업적단위답게 잘 꾸려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자기 단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특히 3대혁명붉은기 락원작업반을 더 잘 꾸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3대혁명붉은기 락원작업반에 내려간 초급당일군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작업반을 손색없이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다녀가신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작업반을 훌륭히 꾸리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초급당일군이 이신작칙하면서 꾸리기사업에 앞장서는것과 함께 수백리 길을 달려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풀어주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령도업적단위인 농장의 면모는 나날이 달라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 영 일

이 땅에는 영원한 인민사랑의 력사가 흐른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다시한번 비약의 발걸음을 내짚은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뜻깊은 10월이 더욱 소중히 안겨든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10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던 장쾌한 축포의 뢰성과 주체의 횃불봉을 억세게 틀어쥔 청년전위들의 횃불행진, 예술의 황홀경을 이루며 대동강반에 펼쳐졌던 1만명대공연…

10월의 경축광장에 용암처럼 분출하던 끝없는 감격과 환희의 파도와 함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그리고 영원히 간직된것은 무엇인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력사의 험한 풍파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마디마디에 한없는 정이 흘러넘치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인민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이 세상에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으랴.

이 땅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어 문득문득 솟구치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눈굽이 젖어들 때면 못다한 충정으로 가슴이 찌릿해지는 우리 인민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자애에 넘치신 우리 원수님의 말씀은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오직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력사의 폭풍우를 헤쳐온 성스러운 갈피마다에서 우리 인민이 온넋으로 터득한 혁명의 진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인민이 위대해지고 조국이 위대해진다는 억척의 신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국력이 약한탓에 나라를 빼앗기고 부평초마냥 떠다니며 망국민의 운명을 통탄하던 우리 인민이였다.

그 인민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이제는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의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당을 따라 걸어온 영광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것은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였다.

이민위천,

숭엄히 불러볼수록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리여온다.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한생토록 걸으시고도 80고령에 이르시여서는 지팽이를 짚고서라도 인민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던 우리 수령님, 인민들가까이에 가시여서는 자신께서 지팽이를 짚는것을 보면 인민들이 가슴아파한다고 하시며 짚고오신 그 지팽이마저 승용차에 두고 인민들앞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은 얼마이며 걷고걸으신 선군장정의 그 길은 또 얼마이던가.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앞서는 우리 인민이다.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쪽잠과 꿰기밥으로 선군혁명천만리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삼복철의 무더위도, 눈비내리는 궂은날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초강도강행군길에 게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은 영원히 기억하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으로 산천초목도 몸부림치던 그때 무슨 힘이 우리 인민을 비애의 바다에서 안아일으켰는가를.

그것은 사랑이였다. 인민의 마음속에 흘러든 불보다 더 뜨거운 정이였다.

이겨내기 힘든 가장 큰 슬픔을 안고계시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여 겨울밤을 보내는 인민들이 못내 걱정되시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나날에 있은 사랑의 이야기를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영원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사상과 풍모도 덕망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이 땅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대의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던가.

인민극장, 인민야외빙상장, 룡라인민유원지, 은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라선땅의 선경마을,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는 인민사랑의 무한한 세계가 비껴있다. 실로 우리 당의 70년사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의 력사임을 폐부로 절감하는 우리 인민이다.

10월의 높은 연단에 오르시여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인민은 보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이 땅에 무궁할 인민사랑의 력사를.

인민은 10월과 더불어 다시 한번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찬연히 밝아올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그날을.

본사기자 김 일 권

과학기술을 앞세워 석탄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자

구체적인 타산과 조건보장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석탄공업성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위한 수십개 항목의 지표별계획수행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겨울철석탄생산준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자체의 보장기지를 통해 해결하여 정상공급하고있는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련합기업소의 보장기지들을 돌아보는 석탄공업부문 일군들 누구에게나 깊은 여운을 주고 이들을 따라앞서려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어느 하나 놓침이 없이 실속있게 집행하려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자랑찬 성과를 낳았다고 누구나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지난해였다.

어느 한 탄광의 막장들을 돌아보던 당책임일군은 탄부들이 리용하는 소공구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자체의 탄광기계공장에서 생산한 소공구들이 별로 눈에 뜨이지 않았다.

일군은 생각했다.

탄광기계공장에 현대적인 열처리로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현대화된 선반들까지 차려놓았는데 무엇이 걸렸는가.

사연을 알아보니 공장에서는 원료가 모자라서 소공구생산을 지표별로 원만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때 일군은 컬린 고리가 탄광이나 공장에 있는것이 아니라 련합기업소일군들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였다.

당정책관철의 운명은 일군들의 두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다시금 자각한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합심하여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당위원회는 참모부가 탄광들에서의 수요량과 그에 따르는 소공구생산과 공급을 책임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부터가 소공구생산에 필요한 유휴자재수집에 앞장섰다.

결과 생산자재중이 떨쳐나섰고 탄광들에서 잠간사이에 많은 량의 유휴자재가 수집되여 공장에서는 소공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던것이다.

보장조건이 따라선데 맞게 공장의 생산과 탄광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막장들에 이르기까지 공급해주는 정연한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였다.

이전에는 련합기업소 해당 부서에 방임하고 탄광들에서 보내오는 수자를 종합하는데 그쳤다면 당, 행정일군담당제를 실시하여 어느 탄광, 어느 갱, 어느 채탄중대, 어느 굴진소대에는 몇명의 탄부들이 일하고있으며 어떤 소공구부터 먼저 공급해주어야 하는가를 종합하여 공장에 지표별소공구생산계획을 시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정확히 총화평가해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여 공장의 소공구생산이 정상화되고 18개 지표에 천수백점의 막장소공구를 탄광들에 정상공급해줄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이 과정에 필수설비부속물공급체계도 철저히 확립되였는데 매달 10여개의 전차차륜과 수백개의 탄차차륜, 많은 량의 레루이음토시와 베루못 등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정상공급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이곳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본받아야 할 측면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자기 당에 철저히 발붙이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작전하여 반드시 알찬 열매가 맺게 하는것이다.

탄광부재공장의 세멘트생산능력을 확장할 때 세멘트생산설비 한 계렬을 다른 나라에서 일식으로 들여오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었다.

이때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의 립장은 단호했다.

우리에겐 지난 시기 수직로라 분쇄에 의한 교강도세멘트생산의 돌파구를 연 경험도 있고 강력한 기술력량도 있다.

제힘을 믿으라!

책임일군들이 이런 정책적대를 세웠기에 탄광부재공장에는 적은 부지면적에서 질좋은 세멘트를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이면서도 집약적인 생산공정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던것이다.

탄부오리공장을 개건할 때 방대한 규모의 투자를 두고 일군들이 망설일 때에는 탄부들을 위한 일에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고, 하나의 대상을 일떠세워도 우리 탄부들이 실지로 덕을 볼수 있게 손색없이 꾸리자고 힘과 고무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지금 한폭의 그림처럼 훌륭히 꾸려진 탄부오리공장에서는 오리, 칠면조, 타조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 매달 정상공급함으로써 탄부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생활로 느끼게 하고있다.

하지만 이곳 책임일군들은 절대로 만족해하지 않는다.

이곳 책임일군의 보물인 수첩에 새겨져있는 과학적인 수자와 자료들이 다 말해주고있다.

그 한페지, 한페지들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방향과 대책이 빠짐없이 표기되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유훈을 어느 하나 놓침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이런 일군들이 있어 오늘 련합기업소에서는 래일의 석탄증산을 약속해주는 흐뭇한 성과들이 앞을 다투어 마련되고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석탄증산의 지름길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총돌격전의 맨 앞장에는 석탄전선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서야 한다. 특히 화력발전소석탄보장을 맡은 탄광들에서 현존생산수준을 뛰여넘는 뚜렷한 생산성과가 이룩되여야 한다.

올해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과정은 목표가 방대하고 전진을 가로막는 난관이 겹쌓일수록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 현대과학기술을 안받침한다면 백번 승리한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석탄공업부문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석탄증산의 지름길을 앞장에서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석탄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들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한다.

석탄공업성과 각지 탄광련합기업소들 그리고 탄광들에서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탄전선으로 달려나온 과학자들이 창안한 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은 탄광들의 모든 채탄장들에 완성식적재운반설비와 사슬콘베아를 빠짐없이 넣어주어 채탄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탄광들에서 벨트콘베아를 놓을 곳에는 벨트콘베아를 놓고 삭도를 놓을 곳에는 삭도를 놓으며 무동력방식으로 석탄과 버력을 나르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운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

동발나무를 절약하면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보다 강도높이 벌리며 고회석을 비롯한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동발을 생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석탄선별계통을 보다 현대화하여 회분함량이 적고 발열량이 높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련합기업소, 탄광참모부가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탄광참모부에서는 석탄생산의 질적지표를 개선하여 생산의 량적장성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갱단위들과 채탄중대들, 굴진소대들과 개별적탄부들에 대한 실적평가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품질감독부문에서 각 탄광들에서의 석탄생산실적을 질량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심장마다에 과학기술중시에 당의 결정지시를 결사관철하는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심어주어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기술자이건 탄부이건 누구나 과학기술로 증산의 돌격로를 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안고 증산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에서 절박한 연구종자를 쥐고

2.8직동청년탄광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

탄성파—전기CT탐사기, 판성식적채운반설비, 새형의 밀폐형탄차바퀴베아링과 이류화몰리브덴그리스, 끌분리에 의한 역기폭발파방법, 유연축천공기와 동발톱, 휴대용단거리무선지체발파기, 10t전차용정류기, 팽화폭약복합첨가제를 연구도입하고 탄광의 전반적갱도를 3차원으로 모형화하여 채굴공정설계를 과학화한것을 비롯하여 뚜렷한 과학연구성과로 나라의 석탄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돌격대원들은 탄성파—전기CT탐사기를 연구도입하고 탄광 지구에서 천수백만의 석탄매장량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돌격대원들은 새형의 밀폐형탄차바퀴베아링과 이류화몰리브덴그리스를 개발하고 100여대의 탄차들에 도입하여 그 수명을 종전보다 3배이상 늘이고 그리스소비를 대폭 낮추었으며 밀폐형탄차바퀴생산공정을 확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순천지구무연탄채굴공학연구소 돌격대원들은 발파효률이 높은 끌분리에 의한 역기폭발파방법을 40여개의 굴진막장들에 도입하여 발파효률을 10~15%더 높이고 굴진순환당속도를 1.2배로 높이였다.

국가과학원 채굴기계연구소와 석탄과학분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 돌격대원들은 유연축천공기와 동발톱을 채탄막장들에 도입하여 로동생산능률을 2배이상 높이였다.

리과대학 돌격대원들은 10여대의 휴대용단거리무선지체발파기를 채탄, 굴진막장들에 도입하여 많은 전기선과 도화선을 절약하고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발파기지체의 전원으로 발파를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돌격대원들은 총전에 탄광에서 리용하던 대출력반도체정류소자대신 성능이 훨씬 좋은 10t전차용반도체정류소자를 개발도입하여 전차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국가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 돌격대원들은 탄광의 전반적갱도를 3차원으로 모형화하여 채굴공정설계를 과학화하였을뿐아니라 갱들의 통기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세워 종전에 비해 공기량을 2배로 늘여 탄부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였다.

평성석탄공업대학 돌격대원들은 새로운 팽화폭약복합첨가제를 창안도입하여 발파후 생기는 유해가스를 중화시켜 굴진공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거둔 성과는 탄광의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석탄공업부문의 탄광들에로 널리 보급되고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현지보도‖

천길막장에 비약의 열풍인다

◎천성청년탄광 3갱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여기는 굴지의 탄전 천성청년탄광 3갱이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쥐고 우리 나라 탄광부문적으로 처음으로 갱내 석탄운반삭도화를 실현한 지하막장에서 우리는 이곳 탄부들의 위훈을 전한다. 전동기의 고르로운 동음이 울리는 석탄부림장에서 천길사갱안을 내려다보니 삭도바가지들이 련속 꼬리를 물고 솟구쳐오른다.

석탄 1t쯤은 가볍게 싣고 궤도를 따라 직선으로 주행하던 삭도바가지들이 귀환점에 이르러 왼쪽으로 급선회한다.

삭도바가지에 채워졌던 쇠고리가 벗기여지면서 석탄이 쏟아진다.

쏟아져내리는 석탄은 벨트콘베아수송선에 옮겨지며 저탄장을 향해 물결쳐흐른다.

석탄을 부리우고 본궤도에 진입하는 삭도바가지들, 눈깜빡하는 사이에 왼쪽에서 보이던 5~6개의 바가지가 오른쪽에서 나타난다.

이런 속도로 석탄을 운반한다면 웬만한 탄발은 한탈도 못되여 바닥이 날듯싶다.

지난 시기 이 갱에서 석탄을 뽑아내자면 권양기로 2t짜리 탄차 3대를 천수백m구간의 사갱으로 끌어올려 부리운 다음 탄차를 쇠바줄에 메워 다시 갱으로 내려보내야 하였는데 탄차회전시간이 퍽 오랬다고 탄부들이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갱안에 삭도를 놓아 채탄장들에 석탄이 쌓일새없게 된것이다.

우리는 갱초급일군들과 함께 삭도의 가동상태를 주시하며 갱의 심부에로 향했다.

천수백m에 달하는 사갱삭도구간을 지나니 거기서 또 수백m의 사갱구간에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자태를 드러낸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붉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짧은 기간에 새로 놓은 벨트콘베아수송선이다. 이 벨트콘베아수송선으로는 보다 깊은 곳에 전개된 채탄장들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삭도운반로선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문제는 종전에 비할바없이 높아진 운반능력에 맞게 생산능력을 확장하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방금 들어선 0편도의 드넓은 채탄구역과 -40편도에서는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굴진전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고 한다.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갱에서는 한개 대규모탄광의 생산량과 맞먹는 석탄이 생산되게 된다고 현장에서 만난 기사장 정영판동무가 말한다.

《한개 갱의 생산량이 대규모탄광과 맞먹을 정도로 비약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기적이고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당 제7차대회에 세상을 놀래우는 이런 비상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불타는 맹세를 담은 목소리이다.

생산능력확장공사장의 한복판에서는 공사기일을 단축하기 위한 이동참모회의가 한창이다.

심부의 채탄장들로 흘러드는 방대한 물을 자수음으로 돌리기 위한 화살표가 도면에 그어지고 분산적으로 작업하던 굴진력량이 주요개소들에 집중배치된다.

설비, 자재보장문제도 참모부성원들의 창발적의견이 합쳐지는 가운데 즉석에서 풀려나간다.

사회주의경쟁요강이 선포된다. 오늘의 경쟁은 어느 굴진소대가 앞서는가를 론하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일군이 담당한 단위가 매일, 매 시각 새 기록을 돌파하는가를 가르는 경쟁으로 되여야 한다는 기사장의 이야기에 장내는 엄숙해진다.

몇달이면 너무 길다. 돌파목표는 한달동안에!

위치를 차지하는 일군들, 그들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이 막장, 저 막장에서 암벽을 두드리는 착암기소리, 증산의 발파소리가 높이높이 울린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확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2.8직동청년탄광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기간에 참으로 많은 연구성과들을 생산실천에 도입하였다.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의 돌격대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탄광으로 달려나와 현실이 요구하는 연구종자를 찾아쥐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증산경쟁의 앞장에서

개천탄광 종합중대 탄부들이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안고 증산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탄광적인 증산경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중대가 서있다.

중대에서는 력량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작업굴진을 선행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특히 교대생산이 진행되기에 앞서 필요한 량만큼 동발나무들을 채탄장들에 넣어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또한 채탄장들에서 케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중대에서는 모든 채탄장들에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성을 부쩍 높이고있다.

한개 소대단위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곳 초급일군들은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높여주고있다. 그리하여 탄부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전 순 희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녀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녀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김정숙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번혁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리정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에서 당이 제시한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며 녀맹원들속에 당 제7차대회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기층조직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모든 초급단체를 모범초급단체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결의목표를 명백하게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량심적으로 총화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누에치기운동을 적극화하며 원군사업과 사회주의경쟁, 좋은 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간직하고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잘 꾸리며 우리의것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녀맹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며 당정책을 옹호고수하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녀성동맹의 전투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대군인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룡천군 신암리당위원회에서는 제대군인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병사시절처럼 살며 일해나가게 함으로써 농사일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제대군인당원들이 혁명초소는 바뀌였어도 마음속의 군복만은 벗지 않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제대군인당원들이 한몫 단단히 할수 있게 믿음을 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어 그들모두가 대오의 기수가 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리당위원회에서는 제대군인당원들에게 큼직큼직한 일감을 대담하게 맡겨주어 일자리를 내도록 하면서 이런 투쟁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초급일군들로 믿음직하게 키워가고있다.

오늘도 이 농장의 제대군인당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로서 언제나 총공격전의 선봉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성 호

불같은 충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성과

우리 당의 미더운 3대혁명전위들이 뜻깊은 올해를 기술혁신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과견단위들에서 생산정상화와 기술개건에서 제기되는 3 30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5 980여개의 과학기술증서를 수여받았다.

이 자랑찬 성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3대혁명전위들의 비상한 신념과 의지,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불같은 충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금속, 석탄, 철도운수,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견단위들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경제강국건설에 뚜렷한 창조의 자욱을 새기였다.

은률광산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의 장력측정장치를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제작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소조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기술문헌들을 연구한데 기초하여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장력측정장치를 만들기 위한 전투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 여러차례 실패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장력측정장치를 만들어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에 도입하여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한해에 수만t의 박토를 더 처리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들은 많은 화공품을 절약하면서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발파기를 제작하고 발파방법도 연구완성하여 현실에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기술혁신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철광석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2.8직동청년탄광 3대혁명소조원들은 저탄장과 석탄운반계통에 자연흐름식물뿌림장치를 창안도입하여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리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탄광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건의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개천객화차대 3대혁명소조원들은 레루맞뗌용접의 원격조종을 실현하였을뿐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새형의 레루균렬탐지기를 연구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철도의 현대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금속구조물의 용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소둔로를 리용하지 않고도 여러가지 금속구조물의 용력해소를 마음먹은대로 진행할수 있는 설비를 자체로 만들것을 결심하고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교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짧은 기간에 성공시킴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인포탄광, 룡북청년탄광, 단천광산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건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풀었다.

경공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인민생활향상에 실지로 도움을 주게 될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여 일터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교원들과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힘을 합쳐 수입에 의존하던 유연창대직기의 이발피대내마모피복천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원산구두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해당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우리 식의 3차원신발설계프로그람을 개발함으로써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신발을 다양하고도 편리하게 만들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공장기술자들과 함께 신발생산공정의 증창물칠작업을 기계화하고 신발겉면에 새로운 유색도막제를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신발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신의주편직공장, 함흥모방직공장, 신의주방적기계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수행에 모를 박고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농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농기계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알곡과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여 올해 농업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은 뜨락또르부속품생산에 절실하게 쓰이는 열처리로의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함께 긴장한 전투를 벌려 로의 온도를 콤퓨터로 자동조종할수 있게 하였으며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황주군농기계작업소 3대혁명소조원들은 용선로의 운영파정에 나오는 폐열을 회수리용하고 주변에 흔한 원료를 알탄점결제로 대용하는 새로운 열풍용선로를 제작하여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농기계부속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하였다.

운전군 판해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들도 당조직의 지도밑에 어느 한 식물의 우림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성장촉진제를 만들어냄으로써 농작물재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부령합금철공장, 회천정밀기계공장, 원산화학공장, 라진항, 평양신발공장, 사리원방직공장, 홍남제약공장, 해주련결농기계공장, 강계오리공장, 서포탈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생산과 건설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문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술혁신의 종자로 찾아쥐고 연구를 심화시켜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준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과학기술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자

치료사업에 앞서 중시한 문제

개천시 무진대탄광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접수하고 그들이 완쾌될 때까지 정성다해 치료해주는것은 의료일군들의 본분이다. 그래서 의료일군들을 평가할 때에는 많은 경우 그들의 치료성과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군 한다.

하지만 개천시 무진대탄광병원에서는 치료사업에 앞서 중시하고있는 문제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입니다.》

개천시 무진대탄광병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매주마다 호담당의사들과 쟁담당의사들의 협의회를 진행하는것이다.

물론 이런 형식의 모임은 주민들과 직접 대상하고있는 모든 말단치료예방단위들에서 다 진행하고있는것이지만 이 병원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마을의 물문제나 꾸리기 문제같은 류다른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토의되군 한다.

하다면 이곳 병원에서는 무엇때문에 치료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돌리고있는가.

언제인가 탄부들과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 원장 김영락동무는 장내성질병을 앓고있는 몇몇 환자들의 병력서에서 뜻밖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들이 모두 한동네에서 살고있다는 사실이였다.

호담당의사를 불러 알아보니 몇달전에도 그 동네에서 이런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왔던적이 있다는 것이였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되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몇몇 호담당의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들은 그 원인을 날씨나 계절바뀜에서만 찾으려 하는것이였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 못된다는것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들의 어조에는 우리야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만 정성다해 잘해주면 될터인데 그런데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속생각이 비껴있었다.

이것은 병원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치료사업에만 낯을 돌리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사업에는 품을 들이려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는것은 비록 부분적이나마 일부 보건일군들이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를 잊고 산다는것을 의미하였던것이다.

병원일군들은 자신들이 앞장서 질병의 원인을 찾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주민들이 리용하는 먹는물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사실 산간지역인 이곳 탄광지구에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에 떠받들려 수도화가 실현되여있었다. 그러나 최근년간 지속되는 가물현상으로 하여 물부족을 느낀 일부 가정들에서 줄짱을 박아 먹는물을 보충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부터 동네에서 장내성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한것이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님을 확신한 병원일군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먹는물의 질을 검사해보았다. 결과 예견한바 그대로 수질이 표준수치에 이르지 못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결국 병원에 환자수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수질이 낮은 물을 리용한데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모든 질병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치료사업에만 급급한다면 주민들의 건강보호사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의료일군들이 모인 자리마다에서 마을의 물문제가 토의되고 병원적으로 소독약들을 공급하는 사업과 수질이 좋은 물원천을 찾기 위한 단계별목표들이 세워졌다.

이 과정에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위생선전을 하는것으로 만족해하던 호담당의사들의 사업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주에 한번씩 쟁담당의사들과 호담당의사들이 모이는 협의회에서 예방사업이 우선적으로 론의되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병원적인 협의회에서 풀어나가며 담당의료일군들에 대한 평가를 인민반이나 막장에 나가 몇명의 환자를 완쾌시켰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어떤 질병의 요소들을 찾아내여 방지하였는가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는 좋은 기풍은 바로 이때부터 확립되였다.

이렇게 되니 의료일군들의 책임성은 더욱 높아졌다.

언제인가 탄광에서 조직한 회의에 참가하였던 의사 김제학동무가 어느 한 단위의 위생문화상태가 불비한데 대해 파모임에서 이야기한적이 있었다. 처음 파에서는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위생상식을 알려주는것으로 그치려 하였지만 병원적인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많은 의료일군들은 생각을 달리하였다.

그 단위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다. 만일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을 등한시하여 이곳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유해인자들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그 단위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릴데 대한 의료일군들의 제의는 탄광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예방사업을 앞세우는 파정에 병원의 치료예방사업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입원환자나 왕진을 청하는 환자들이 적어지고 상급병원 파송률이 현저하게 줄어든것은 두말할것도 없으며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으로 탄부들과 주민들이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맡은 혁명초소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비록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간마을의 자그마한 탄광병원이였지만 우리 당의 보건정책이 보다 정확히 관철되고 인민들의 건강보호사업에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사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의학이 하나의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예방의학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오직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키고 빛내이자면 우리의 보건일군들이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

경험은 누구나 이 탄광병원의 일군들처럼 당의 보건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스스로 더 많은 일감들을 도맡아나설때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속에 더 잘 그리고 속속들이 미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주민들속에 깊이 들어갈 때

만경대구역 광복종합진료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일군들은 담당구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호사업을 더욱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켜나가는 사업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호담당의사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자면 과연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예방을 치료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는 만경대구역 광복종합진료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본다.

이곳 의료일군들은 늘 주민들속에서 살다싶이 한다. 하도 자주 만나고 허물없이 지내다나니 어느덧 한식솔처럼 가까와졌다는것이 주민들의 반영이다.

이들은 왜 주민들과의 사업에 그토록 많은 품을 넣고있는가.

10여년전 이곳 진료소 소장으로 임명된 김해란동무는 호담당의사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한 문건앞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뗄줄 몰랐다.

거기에는 월간 호담당의사들이 몇시간을 치료에 돌리고 몇시간을 담당세대들에 나갔는가 하는 수자적인 자료들이 적혀있었다.

그것을 들여다볼수록 진료소에 앉아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만 급급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본분인 정성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의료일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글줄들에서 어려와 마음이 무거웠던것이다.

물론 환자치료에 정성을 쏟아붓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주의보건일군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쳤다.

그때부터 진료소일군들의 관심과 지도속에 호담당의사들이 진료소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많은 시간을 주민들속에서 보내는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었다. 이렇게 되니 우선 담당구역관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였다.

늘 주민들과 함께 있는 파정에 조금이라도 병증세가 나타나면 제때에 약도 공급하고 치료대책도 세워나가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매 가정들을 찾아다니며 격식없는 위생선전활동을 벌려나가는 파정에 주민들이 더 많은 위생지식과 건강상식들을 알게 되여 질병들에 대한 예방사업에 그들자신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여들게 하고있는것도 이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의 하나이다.

실례로 호담당의사들은 담당한 어느 한 가족성원들중 한명이 고혈압증세가 나타나면 그 원인이 유전적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조기치료대책을 세운다.

보다 중시할것은 그와 함께 가족성원들에게 식생활방식과 생활관습 등 섭생을 위해 알아야 할 상식들과 지식들을 알기 쉽게 일깨워준다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여러가지 운동을 비롯한 몸단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일상생활도 규칙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처럼 늘 주민들속에 들어가 살다싶이 하면서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있는 이런 의료일군들이 많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더욱 아름답게 빛을 뿌리는것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주 령 봉

문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덕군 립석리인민병원에서는 때없이 류다른 경연이 진행되군 한다. 이 경연은 매 의료일군이 준비한 위생선전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는 위생선전경연이다. 하다면 병원에서는 무엇때문에 이처럼 류다른 경연을 조직하면서까지 위생선전사업에 그토록 힘을 넣고있는것인가.

일부 단위들에서는 얼마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선전을 얼마만큼 진행하였는가 하는 수자적인 자료를 더 중시한다. 하지만 이 병원의 일군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의학지식들과 상식들을 그들의 귀에 얼마나 쏙쏙 들어가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위생선전사업정형을 평가한다. 사람들의 귀에 가닿지 않고 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위생선전은 필요없다는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인것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들은 위생선전사업의 량적측면보다 질적측면을 더 중시하며 이처럼 따로 경연까지 진행하는것이다.

이렇게 위생선전경연을 조직하니 여러모로 좋았다.

우선 위생선전을 준비하는데 들던 많은 시간과 품을 덜게 된것이다. 모든 의료일군들이 한가지이상의 좋은 상식들과 선전방법들을 내놓는다고 볼 때 많은 의료일군들이 참가하는 이 경연이 얼마나 많은것을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계기로 될것인가는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를 내고 열을 얻는 실리있는 경연, 짧은 시간에 상식을 넓혀나갈수 있는 훌륭한 학습마당으로 되는것이다.

류다른 경연무대

우점은 또한 이 경연을 통해 의사호상간, 파호상간 학습열풍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는것이다. 서로가 좋은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위생선전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면서도 구수하게 엮어나가기 위해 시간을 쪼개며 학습하는 과정에 이들의 실력은 한층 높아졌다.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위생선전의 나날들과 더불어 상급병원파송률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였다.

립석리인민병원에서 진행하는 위생선전경연은 우리 의료일군들이 늘 머리를 쓰고 사색할 때 인민의 밝은 웃음을 지켜갈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랑만과 기백이 넘쳐나는 집단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

얼마전 우리는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는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터가 노래와 춤으로 흥성거리고 온 나라에 혁명적랑만과 정서가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열정과 랑만에 넘쳐 일해나가는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새는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기를 힘껏 북돋아주고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인민위원회일군인 리명언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메마른 땅에서 알찬 열매를 기대할수 없듯이 랑만과 정서가 없이는 그 어떤 사업성과도 기대할수 없으며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는 일군일수록 풍만한 정서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다.

언제인가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노래보급에 참가하였던 초급당위원회일군은 일부 일군들이 사업이 바쁘다는 구실로 여기에 형식적으로 참가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를 놓고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본신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되도록 진행하지 못한 자신들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속에 군중문화예술활동의 된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더욱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부서별로 노래제목을 미리 선정해주고 시연회를 거친 다음 출연하도록 하였다.

시연회에서는 기량수준은 물론 악기구비정형과 무대복장에 이르기까지 합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요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군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일군들의 의욕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정과 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채롭게 조직하는데도 각별한 힘을 기울이였다.

얼마전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한 제대군관들의 중창경연을 실례로 들수 있다.

제대군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조직된 중창경연은 일군들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군중문화에술활동의 된바람을 일으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이렇게 부서별로 합창과 중창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군중문화예술활동은 일군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며 사업과 생활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업이 드바쁜 속에서도 부서별노래련습이 은근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며 적극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이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노래소리는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생활과 투쟁의 박동인양 힘차게 울려퍼졌다. 서로 배우고 배워주며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부르는 과정에 일군들의 전반적인 에술기량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져 군중문화예술활동에서 도적으로 손꼽히는 단위가 되였으며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나날에 노래는 이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사업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였으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인, 일군이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 일본새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투쟁하며 생활해나가는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집단에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차고넘칠 때 모든 사업이 활력에 넘쳐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김 성 민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지식인들의 삶을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우리 지식인들의 보람찬 삶은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한 김일성사회주의종합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박우섭, 원산수산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송한정과 아흔번째 생일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한병준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당의 품속에서 작가로 성장한 정기종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불타는 혁명적열정, 창조적사색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조선의 힘》과 《열병광장》,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를 비롯한 총서작품들과 수많은 장, 중편소설들을 창작하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어머니당의 손길아래서 부모잃은 설음을 모르고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편 박우섭은 대학을 졸업한 때로부터 수십년간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면서 한생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높은 실력으로 충직하게 받들어왔다.

송한정은 수십년간 대학교단에서 당의 교육정책과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20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여 나라의 수산기술인재육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해방전 황해북도 상원군의 빈농의 가정에서 태여난 한병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배움의 꿈을 활짝 꽃피우고 수십년간 교육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면서 여러 전공과목을 개척하고 수십종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지식인들과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외무상이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앙골라독립 4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앙골라공화국을 공식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이 12일 대통령궁전에서 쥬제 에두아르두 두스 싼뚜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쥬제 에두아르두 두스 싼뚜스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리수용외무상이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앙골라독립 40돐 경축행사에 정부대표단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께서 앙골라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되새겨볼수록 그분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앙골라와 조선사이의 전투적우의와 친선협조관계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관심속에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다방면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앙골라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서 그는 앙골라는 뿔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조선과의 호상 지지협력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대표단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 외교문제담당비서, 외교문제비서실 보좌관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상이

여러 나라 국가, 정부수반들을 만났다

앙골라독립 4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이 11일 여러 나라 국가, 정부수반들을 만났다.

필리뻬 뉴씨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모잠비끄의 선대령도자들과 함께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관계라고 하면서 뿔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호상 지지협력을 강화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쟈코브 게들레이홀레키사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조선인민은 남아프리카인민의 투쟁에 시종일관 지지성원을 보내주었다고 하면서 좋게 발전하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무상은 말리공화국, 까부 웨르드공화국 수상들을 각각 만났다.

한편 이날 리수용외무상은 쌀바도르 안또니오 발데스 메싸 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두 나라의 쌍무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상과 앙골라대외관계상

회 담

앙골라독립 4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앙골라공화국을 공식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제오르제스 레벨루 삔뚜 시꼬꺼 앙골라공화국 대외관계상의 회담이 12일 대외관계성 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대외관계성 판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가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미술작품이 차지하는 몫과 의의도 자못 크다.

올해에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창작가, 교원들이 창작한 우수한 미술작품들가운데서 체육주제의 미술작품들은 많은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미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체육주제의 미술작품들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을 끈것은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련전련승의 체육신화를 창조하여 또다시 영예의 우승컵을 거머쥔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의 미더운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이다.

그 대표적작품들로서는 조선화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 유화 《조국의 딸들》, 판화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 조각 《득점명수》 등을 들수 있다.

그중에서도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 박광림외 7명의 교원들이 창작한 조선화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은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당의 의도를 민감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시상대에서 우승컵을 두손으로 높이 추켜올린 우리 팀의 주장과 그옆에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녀자축구선수의 어깨에 한손을 얹고 다른 손을 높이 쳐들며 련전련승의 쾌감을 터뜨리는 감독, 람홍색공화국기를 두손으로 높이 들고 휘날리는 녀자축구선수, 영예의 금메달을 번쩍이며 시상대의 단을 내려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한 녀자축구선수들, 그들모두의 얼굴마다에는 한시바삐 이 승전소식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어머니 조국에 아뢰이고싶어하는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비껴있다.

지난 시기에도 여러 각도에서 축구선수들의 투쟁과 생활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의 교원들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상과 위용을 남김없이 시위한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이 우승의 시상대에서 내려서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극적인 순간을 화폭에 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친 오늘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경이적인 체육신화를 계속 창조하며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을 상징적으로 잘 부각시켰다. 이러한 형상을 통해 작품은 시상대의 높이를 조국의 높이로 자각하고 백두의 넋과 기상, 불굴의 정신력으로 선군조선의 승리의 개가를 올린 빨찌산녀전사들처럼 누구나 보다 큰 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심장하게 시사해준다.

이 작품이 우수하게 평가될수 있은것은 이외에도 조선화학부의 교원들이 적합한 구도형식을 택하고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들을 잘 살려 화폭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움직임과 환경묘사도 작품의 사상성을 강조하는데 지향되도록 하였기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주제사상적내용을 담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지 못한다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교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녀자축구선수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과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녀자축구선수들의 도착과 관련한 혁명활동보도를 거듭하여 읽어보며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키던 과정에 이 작품의 종자를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로 잡게 되였다.

거기에 기초하여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의 체현자들,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의 정신세계를 긴 횡적구도속에서 서사시적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앙감투시의 시점에서 당의 미더운 체육전사들인 오늘의 빨찌산녀전사들의 모습과 그들이 높이 쳐든 우승컵, 경기장상공에 펄펄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을 둘러싼 외국기자들의 모습 등을 형상함으로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을 상징적으로 부각시켰다.

교원들은 조선화의 전통적인 선묘기법과 구륵기법으로 녀자축구선수들의 얼굴표정과 건강미가 넘치는 활달한 움직임을 방불하게 형상하여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의 쾌감에 젖어있는 그들의 곁에 함께 서있는듯 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인물들주위의 환경묘사도 전통적인 몰골기법과 우륵기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대담하게 집중과 함축을 적용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성을 조선화기법으로 보다 뚜렷하게 강조하였다. 색채형상에서도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과 우승컵, 시상대, 람홍색공화국기를 보다 밝고 열정적인 색깔로 통일시키고 그 주위환경은 그와 대조되는 색깔로 조화를 맞추어 형상함으로써 우리의 눈부신 승리, 조선녀자축구의 위력을 예술적화폭으로 훌륭히 재현하였다.

조선화 《선군조선의 빨찌산녀전사들》을 비롯한 체육주제미술작품들의 창작성과는 미술부문의 창작가들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명작창조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백 성 근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우리 식의 프로그램개발경쟁

제26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와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며 3대혁명전시관 새 기술혁신판에 펼쳐진 제26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장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프로그람기술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정보기술 특히 프로그람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가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프로그람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우리 나라의 프로그람기술은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대들을 돌아볼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뜻깊은 올해에 정보기술분야에서 또 한번 크게 비약한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이 벅차게 안겨들었다.

최첨단돌파의 전초선에서 우리를 찾으라

많은 참관자들로 붐비는 김일성종합대학전시대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뗄수 없었다.

국가공중교환기로 리용할수 있으며 다음세대 통신망의 핵심 조종요소로 사용할수 있는 우리 식의 쏘프트교환기, 손전촉에 의한 화면조종을 광학적방법으로 실현함으로써 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교육의 현대화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광학식손접촉화면조종프로그람, 영농관리, 축산관리, 토지관리기능을 갖춘 우리 식의 농업부문 통합생산관리체계…

대학의 한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CNC화와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람들을 출품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람들은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와 평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 식의 최첨단프로그람들을 더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이어 국가과학원전시대에 이른 우리는 과학원일군인 강홍규동무에게서 출품된 프로그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들을수 있었다.

평양매기공장 생산공정모의체계, 량자저항성을 가지는 공개열쇠암호화프로그람, 실시간화상감시체계, 프로그람론리조종기에 의한 공기조화기조종반, 윤활유도람포장로보트 등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치하를 받아안은 프로그람들과 정보기술설비들을 비롯하여 90여건에 달하는 많은 첨단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해가는 커다란 긍지에 넘쳐 빠른 기간안에 우리 나라를 당당한 프로그람개발강국으로 더욱 빛내여갈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드높은 신심과 열의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이번에 그 어느 단위에 비할수 없이 많은 첨단연구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참관자들을 놀래웠다.

모든 생산관리가 콤퓨터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통합생산관리체계, 열간압연되는 강판의 치수정밀도와 기계적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련속식열간판압연공정작성프로그람, 화상진단장치들과 봉사기, 림상단위들을 련결하는 화상정보통신 및 공유, 자료기지관리체계인 의학화상전송체계, 태양열집열계통의 합리적인 설계정수와 난방부하, 물공급부하를 결정하기 위한 태양열난방물공급설계계산프로그람을 비롯한 이들의 성과속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칠데 대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언제나 시대의 앞장에서 달려온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체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불타는 충정과 탐구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진정 전시된 하나하나의 성과자료들은 단순한 과학연구성과이기 전에 강성국가건설의 전렬에서 기세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신념의 메아리로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최첨단돌파의 전초선에서 우리를 찾으라!

온 나라에 차넘치는 프로그람개발열기

이번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는 전문가부류와 비전문가부류로 나뉘여 진행되고있다. 비전문가부류에는 전국의 수많은 교원, 학생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중에서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의 교원, 학생들이 합심하여 개발한 대상지향체계설계능력평가지원체계는 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기관들에서 높은 프로그람개발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프로그람인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프로그람개발에 특별한 취미와 소질을 가지고있는 1학년 학생인 오남성동무의 재능을 찾아내고 계발시켜 이번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에 참가할수 있도록 적극 내세워주었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람은 체계개발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의 프로그람작성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뿐만아니라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방조도 줄수 있는것으로 하여 프로그람개발능력평가와 학습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한다.

이번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출품한 프로그람들도 현실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수풍발전소에서 일하고있는 신철민동무가 내놓은 프로그람을 보아도 그렇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폭넓은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 그가 개발한 수풍발전소전력관리지원체계는 발전기운영에서 교효률운전자료의 실시간봉사와 발전, 변전설비운전상태에 대한 분석처리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람이다.

우리는 평양인견사공장의 리원일동무도 만날수 있었다.

현재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1학년 학생인 리원일동무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에 참가해보니 파학기술이야말로 비약의 보검이라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고 신심도 생겼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 공장의 부문별로 되여있는 조종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발전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이번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에서는 함흥학생소년회관의 10대의 나이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어당겼다. 뛰여난 소질을 가진 재간둥이들을 적극 찾아내여 그들의 재능의 싹을 활짝 꽃피워주는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한 청소년과외교양체계의 질적수준을 보여주는 이채로운 화폭이 아닐수 없었다.

어른들에 못지 않은 포부를 안고 앞날의 과학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새 세대들의 담찬 모습을 우리는 이들이 출품한 여러건의 특색있는 교육지원프로그람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었다.

기영혁, 김철국학생들이 출품한 대상지향언어질문응답체계, 장용인, 김청강학생들이 출품한 체계프로그람작성능력평가지원체계, 리광성학생이 출품한 위제트활용능력평가지원체계, 리대성, 김호강, 리철림학생 등이 출품한 여러건의 학과목학습효률개선방법프로그람들…

실용성높은 프로그람들을 안고 이번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에 당당히 참가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참관자들의 감탄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우리는 이런 훌륭한 학생들을 키워낸 지도교원 한세옥동무와 만나 그의 결의도 들을수 있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조국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쟁쟁한 정보기술인재들로 키우기 위하여 앞으로도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제26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는 우리 식의 프로그람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고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이 서로 배우고 배워주며 파학기술로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의지를 더욱 억세게 가다듬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온 나라가 이렇게 끓고있다. 당의 파학기술중시사상을 신념의 표대로 더 높이 추켜들고 어디서나 누구나가, 나어린 새 세대들까지 드높은 프로그람개발열기, 애국의 열기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의 기술, 우리의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내 조국의 미래는 또 얼마나 창창할것인가.

강 철 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3대혁명전시관 새 기술혁신판에서 제19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십건의 연구성과자료들을 내놓았다. 특히 체육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된 물리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주덕영동무를 비롯한 학부의 교원, 박사원생들은 체육성 일군들, 조선체육대학 교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촬영기와 레이자를 리용하여 사격조준훈련에서 조준점의 류동자리길과 탄착점을 실시간적으로 측정하고 정량적으로 종합분석하여 사격선수들이 명중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를 압도하는 체육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할 열의에 넘쳐 탐구의 낮과 밤을 불같이 이어온 평양의료기구기술사 일군인 박사 김인철동무를 비롯한 젊은 연구사들은 인체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의 에네르기적변화를 분석하여 체육선수들의 신체구성성분을 비롯한 150여가지의 생화학적검사지표들을 1분동안에 평가할수 있는 측정기구와 손전화기를 리용하여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맥파, 체온과 같은 중요생체정보지표들을 어디서나 신속히 측정분석평가할수 있는 휴대용신체검진기를 포함한 4건의 가치있는 측정기구들을 출품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였다.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실장 서철봉, 연구사 안영미동무들은 태권도선수들의 운동능력을 현지에서 직접 검측하여 감독이 선수의 안정상태에서와 운동후의 맥박, 운동거리와 시간에 따르는 산소섭취량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표를 평가할수 있는 프로그람을 개발하여 내놓음으로써 선수의 육체적능력에 따르는 교수훈련지도를 파학화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가치있는 체육과학연구성과들

평안남도체육국 책임부원 강춘일동무는 체육부문의 해당 단위들에서 모든 경영업무 및 자료관리를 보다 신속정확히 진행할수 있는 프로그람을 출품하였다.

이 프로그람은 이미 도체육국안의 모든 부서들사이에 콤퓨터망을 구축하고 정보 및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1등으로 평가되였다.

관모봉체육단에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5를 비롯한 국내경기들에서 선수들의 치료에 리용된 외상분무약 등 여러가지 체육의약품들을 출품하였다. 체육의 과학화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체육단일군들의 사심없는 방조와 김우일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노력이 어린 체육의약품들은 수입산에 비해 원가가 낮고 효능이 높을뿐아니라 선수들이 경기와 훈련과정에 받은 외상을 즉시에 치료하며 특히 근육경직을 예방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도 전시된 많은 성과자료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체육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체육인들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본사기자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으로 싸워 승리한 2중세계선수권보유자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선수

얼마전 영국에서 진행된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조마운동 결승경기는 8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최종적으로 1, 2, 3등을 차지한 선수들만이 다음해에 진행되는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받게 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한 경기였다. 그만큼 결승경기에 참가한 여러 나라 선수들의 야심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리세광선수는 6번째로 뛰게 되였다. 앞서 경기를 진행한 5명의 선수들중에서 로므니아와 미국선수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앞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이 시각 리세광선수의 심장에서는 파연 무엇이 고동쳤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만난 기계체조협회 일군인 배길수동무는 이번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조마운동경기에는 근 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먼저 예선경기를 진행하고 점수가 제일 높은 8명의 선수들이 결승경기를 진행하였다고 말하였다.

리세광선수는 예선경기에서 단연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오는 기계체조종목의 특수성으로부터 결승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심리상태는 예선경기때와 대비할수 없이 자못 긴장되여있었다.

특히 지난해의 대회 조마운동에서 세계선수권을 쟁취한 우리 나라의 리세광선수를 누구나 다 경계하고있었다.

그러나 리세광선수의 얼굴에는 경기장에 감도는 긴장한 분위기와 전혀 무관계한 필승의 신심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그 확고한 신심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었던가.

그것은 지난해 10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한생토록 잊지 못할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에 새로운 승리로 보답할 결사의 각오였다.

리세광선수는 체육인이기 전에 조선인민군 군인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하는 군인정신이 맥박치는 리세광선수의 심장에 어찌 필승의 신심이 차넘치지 않을수 있으랴.

기어이 승리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리라!

리세광선수의 이런 드림없는 담력과 배짱은 대회시작전부터 높이 발휘되였다. 선수권대회시작을 며칠 앞둔 어느날 조마운동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이 경기장소에 모두 모여 훈련을 하는 계기가 있었다.

여기에서 리세광선수는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국제체조련맹 성원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체조전문가들의 찬탄도 불러일으켰다. 한편 그의 신심넘친 동작수행은 다른 나라와 지역 선수들과 감독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결승경기가 진행된 11월 1일, 이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천만군민이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던 의의깊은 때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하는 군인정신이 맥박치는 리세광선수의 심장에 어찌 필승의 신심이 차넘치지 않을수 있으랴.

기어이 승리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리라!

리세광선수의 이런 드림없는 담력과 배짱은 대회시작전부터 높이 발휘되였다. 선수권대회시작을 며칠 앞둔 어느날 조마운동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이 경기장소에 모두 모여 훈련을 하는 계기가 있었다.

여기에서 리세광선수는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국제체조련맹 성원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체조전문가들의 찬탄도 불러일으켰다. 한편 그의 신심넘친 동작수행은 다른 나라와 지역 선수들과 감독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결승경기가 진행된 11월 1일, 이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천만군민이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던 의의깊은 때였다.

바로 이날에 결정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리세광선수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기백있게 달렸다.

리세광선수는 난도높은 2개의 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여 로므니아, 미국 등 결승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을 명백한 점수차이로 물리치고 영예의 1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그는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였다. 이와 함께 다음해에 진행되게 되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도 획득하게 되였다.

리세광선수의 이 자랑찬 성과속에는 훈련과 경기보장을 위한 후원사업에 열정을 바쳐온 국장리청동무를 비롯한 잠업비단공업국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뜨거운 진정도 슴배여있다.

우승의 시상대에서 리세광선수는 높이 오르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조선이 또다시 승리하였습니다.》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다른 나라 감독, 선수들은 물론 전문가들과 관람자들도 경기결과는 예상그대로 되였다고 하면서 세계체조계를 또다시 놀래운 조선의 리세광선수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와 만난 리세광선수는 말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 올랐을 때 저는 결코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국제경기들에서도 반드시 우승을 떨쳐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것이 저의 변함없는 목표이고 본분이기때문입니다.》

조국의 영예를 승리의 금메달로 빛내인 2중세계선수권보유자 리세광선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다.

당이 안겨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빨찌산식공격전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리세광선수가 이룩한 자랑찬 경기성과는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는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리세광선수의 승전소식은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기세드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체육강국의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 굳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지혁철

‖수 필‖ 축하장에 담는 생각

어머니날을 맞으며 어머니에게 드릴 기념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던 끝에 나는 뜻깊은 축하장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평양축하장기념품상점을 찾았다.

나이도 직업도 각이한 수많은 사람들로 상점은 붐비고있었다. 따뜻한 눈빛으로 축하장을 받아들고 기뻐할 어머니를 그려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장을 고르는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귀가에 몇해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11월에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던 상점이 이제는 어머니날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흥성인다는 판매원의 말이 들려왔다.

순간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가슴속에 파도쳤다. 2012년 11월 16일 어머니날이 제정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한없이 고마운 우리 당을 우러러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속을 태우기도 하고 참아내기 어려운 일도 용케 참아내면서 묵묵히 자식들을 키워갑니다.》

매대의 축하장들이 별로 인상깊어 자세히 살펴보느라니 얼마전 당창건 일혼돐경축 중앙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알게된 어머니날의 축하장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이 떠올랐다.

화려한 꽃다발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을 그러안은 귀여운 아기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라는 글발이 새겨진 뜻깊은 저 축하장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첫 어머니날을 맞이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하나하나 몸소 지도해주시였다고 하는 강사의 젖은 목소리는 많은 참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우리 인민모두를 뜨겁게 한품에 안고 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가정과 자식들을 위하여 누구보다 수고가 많은 이 나라 어머니들을 사랑의 축하장과 함께 떠받들어주시지 않았던가. 진정 저 축하장들이야말로 우리 원수님께서 이 나라 어머니들에게 제일먼저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인사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축하장에 인사말을 써넣고있는 청년도, 귀여운 아기의 손목을 잡고 축하장의 그림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는 젊은 부부도, 싱글벙글 웃고있는 나이지숙한 손님도 축하장에 담겨져있는 어버이의 그 사랑을 아마 다는 모르리라.

지난해 어머니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들의 모범적인 보육원, 교양원들을 평양에 불러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목이 메여 40여년세월 철부지 어린 원아들을 키워온 보육원이 터쳤던 감격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나는 일생에서 바로 그날을, 어머니날을 제일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에 나이 60이 다되여서야 진짜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신성하고 친근하고 소중한 부름은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인간적인 모든 품격이 어머니의 손길아래서 먼저 형성되게 된다. 어머니들의 품격은 자식들의 인품과 수준을 결정하며 앞날의 민족의 높이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어머니들도 한생토록 어머니라 부르며 스스럼없이 안기며 따르는 자애로운 품이 있다. 이 나라의 아들딸들과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넓고 따사로운 한품에 다 안아주는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펼치면 두손바닥에 가볍게 놓이는 자그마한 축하장을 무겁게, 소중히 간직하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이 축하장을 어머니에게 드리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꼭 이야기하리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 당의 사려깊고 다심한 그 사랑을…

김 성 룡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독자의 편지 정말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입니다

올해 1월 어느날 저의 손자애는 뜻밖의 병으로 인한 출혈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안식구들은 손자애를 업고 정신없이 가하리진료소 소장 김련희선생님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심한 출혈로 하여 손자애의 병은 위급했습니다. 얼마 안있어 진료소의사들과 주변에 사는 보건기판 의료일군들도 달려왔습니다. 소장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였습니다.

마침내 손자애는 고마운 의사선생님들의 뜨거운 정성에 의해 급한 고비를 넘길수 있었고 군인민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였습니다. 우시군인민병원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들도 우리 손자애의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기울이였습니다. 피를 넣어주어야 할 때에도 군인민병원 의사선생님들은 자기들의 피를 서슴없이 뽑아주었습니다.

이런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이 있었기에 저의 손자는 20여일만에 회복될수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죤으로만 듣고 보아오던 인간사랑의 화폭이 펑범한 우리 가정에서도 펼쳐졌으니 이 가슴뜨거운 현실을 뼈와 살에 새기며 저는 목청껏 웨치고싶습니다.

인간사랑의 대화원,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그 제도를 더욱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시군 가하리 최 창 률

천연기념물-개풍느티나무

주체85(1996)년 3월 왕진왕릉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개풍느티나무가 아주 오래 자랐고 보기도 좋다고 하시면서 잘 보호관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개풍느티나무는 500여년이나 자란 나무이다.

이 느티나무가 자라고있는 토양은 화강편마암을 모암으로 발달한 모래메흙땅이다.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잎지는 넓은잎키나무로서 나무의 높이는 16m, 뿌리목둘레는 3.2m, 가슴높이둘레는 3.2m이며 나무갓너비는 17.4m이다.

잎은 가지에 어기여나며 타원형의 탐알모양 또는 타원형의 버들잎모양인데 끝은 뾰족하고 밑부분은 이그러진 모양이다.

암수한그루식물로서 4~5월에 잎아귀에서 수꽃은 아래부분에 1~3개씩 피고 암꽃은 웃부분에 1개씩 핀다.

열매는 4㎜정도의 둥근형의 여원 열매이며 10월에 푸른색으로 여문다.

개풍느티나무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왕건왕릉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줄뿐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민족의 자랑 — 지방특산료리

함 경 남 도

함경남도의 특색있는 료리들에 대하여 소개한 다매체편집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다매체편집물의 내용에 의하면 이 지방에서는 산세가 험하고 조선동해를 끼고있는 자연지리적조건으로 하여 예로부터 동해바다에서 나는 물고기와 산간지대에서 생산되는 낟알과 산나물로 만든 특산음식들을 발전시켜왔다.

양념장으로 비빈 감자농마국수사리에 꾸미를 놓아 만든 함흥농마국수는 함경남도의 으뜸가는 특산음식으로 일러주고있다.

북청지방의 가재미는 예로부터 크고 살이 많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물고기로 만든 북청의 가재미식혜는 그 고유한 맛으로 하여 오늘도 함경남도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음식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좋은 밥반찬으로 알려진 명란젓중에서 함경남도의 명란젓이 제일가는것으로 되고있다.

어느 한 물고기에 호박을 두고 끓은 장 역시 함경남도의 특산음식으로서 중, 로년기사람들의 정력을 높여주는 강장제로, 급성간염, 폐결핵치료 등에 효과가 있으며 원기회복과 어린이키크기에 좋은 약용음식으로 알려져있다.

함경남도의 털게찜은 크고 맛이 좋은 흥원의 털게로 만든것으로서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과 간장질병 등의 예방 및 치료음식으로서 가치가 있다.

함경남도지방에는 오래전부터 잔치상에 기지떡을 반드시 올려놓는 풍속이 있다. 기지떡은 년중 아무때나 만들어먹을수 있는데 주로 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봄철에 특식으로 많이 만들어먹었다.

본사기자

스트레스관련성질병과 그 예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약물료법과 더불어 마음도 같이 다스려야 건강을 빨리 회복할수 있다고 말을 한다.

약절반, 마음절반이라고 인간의 육체와 심리는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초조감과 불안 등의 심리상태가 계속되면 질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상태의 개선이 없이 순수한 약물료법만으로는 병치료가 잘되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로부터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는 모든 질병을 심신의 호상관계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심신의학을 의학과학의 새로운 분야로 내세우고있으며 의료사업은 이전의 질병중심의 치료로부터 환자중심의 치료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정신적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심리적인 환경인자에 의하여 생기는 신체장애나 그로하여 악화되는 질병을 심신질병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심신질병으로서는 스트레스관련성 위 및 십이지장궤양, 신경성위염, 신경성식욕부진 및 항진증, 허혈성심장병, 기관지천식, 식물신경실조증 그리고 갱년기장애 등을 들수 있다. 《궤양은 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스트레스관련성 위 및 십이지장궤양은 심리적환경인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소화기심신질병의 하나이다.

자료에 의하면 심신의학이 발전된 나라들에서 소화기내과 외래환자의 60~70%가 심신질병환자였다. 현재 심신질병의 발생빈도는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대부분의 심신질병환자들은 자신의 심리상태에서의 변화를 감촉하지 못하고 신체에서의 병적증상만을 호소하므로 해당 보건기관들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있다.

심신질병환자들은 신체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것은 물론 간혹 반응을 보이는듯 하다가도 병원에서 퇴원만 하면 인차 재발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의료일군들이 환자들의 신체적인 병적증상과 함께 병의 원인으로 되는 정신적스트레스의 요인 등을 잘 알고 그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약물료법과 결합하여 진행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스트레스관련성질병의 요인은 스트레스 그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개별적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적응상태의 차이에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관련성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심리상담과 행동료법, 암시료법을 비롯한 심리치료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배구, 롱구, 수영 등의 대중체육과 음악, 미술감상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언제나 락천적이면서도 명랑한 기분으로 살며 일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박사 부교수 최 혜 영

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가시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놓은 8월의 북남합의가 체택된지도 석달이 되여온다. 이 나날은 북남합의를 성실히 리행하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결실로 이어진 나날이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지난 8월의 북남합의도 우리의 애국애족적립장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남합의이후 우리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려는 의지를 안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축구대회를 성사시키였다. 이것은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분렬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려는 우리의 조치와 노력은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남조선당국이 구태의연한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도전해나서면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긴장완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대화》에 대해 곧잘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외세와의 공모결탁을 강화하면서 대화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적대행위만 일삼고있다.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고있던 그 시각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이 돌아치며 긴장을 조성하였으며 그뒤를 이어 정세를 뒤흔드는 대규모적인 련합해상기동훈련과 《호국》, 《화랑》의 간판을 내건 도발적인 북침전쟁불장난소동들이 벌어졌다. 그런가하면 남조선집권세력은 《북핵위협》이니, 《북인권》이니 하는따위의 잠꼬대같은 나발을 불어대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국제공조책동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렸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에서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북남관계는 결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은 이루어질수 없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추구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반민족적인 대결정책의 실현이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은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가로놓인 커다란 장애이다.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매국반역정책이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북이 요구한다고 하여 〈대북정책〉을 바꾸는 일이 있을수 없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대결정책과 그 무슨 《원칙론》을 한사코 고집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도발소동을 계속 감행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남조선당국이 지난 8월 우리와 쌍방사이의 무장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합의를 하고서도 돌아앉자마자 외세와 야합하여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린것도 그에 대한 립증이다. 사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합의에는 아랑곳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대조선고립압살야망으로부터 북과 남이 단합하여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을 북침전쟁돌격대로 내몰면서 북남대결을 조장하고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려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파괴와 북침전쟁도발에 광분하는 미국과 적극 공모결탁함으로써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최근 남조선군부패거리들은 미국과 제40차 군사위원회 회의, 제47차 《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북침선제타격계획을 모의하였다. 내외호전광들이 《도발억지》니, 《북의 핵과 미싸일에 대한 공격적제거》니 하는 따위의 화약내풍기는 폭언들을 늘어놓으며 《4D작전계획》의 수립을 공식발표하고 그것을 《작전계획 5015》에 반영하여 앞으로의 합동군사연습들에 적용하기로 한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에 매달리며 동족과 대결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파탄될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각본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에 그 어느때보다 기승을 부리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유엔에서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이라는 반공화국모략문서를 꾸며내기 위해 외세와 공모결탁한 사실과 서울에서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인권회의》를 벌려놓은것도 그것을 보여준다. 《인권》의 간판밑에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고취하는 이런 불순한 놀음이 종당에는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에서 《국정화》의 간판밑에 벌어지고있는 력사외곡책동을 통하여 《체제통일》을 정책화하고있는 남조선집권세력의 흉악한 기도는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 그자체가 바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고 사회전반에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고취하여 골수에 찬 《체제통일》의 개꿈을 이루어보려는 범죄적망동이다.

력대로 남조선의 반역통치배들치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하지 않은자가 없으며 그들이 한짓이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것밖에 없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선임자들의 전철을 밟으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대세에 역행하며 반공화국대결정책실현에 광분하면서도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도발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를 결코 개선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만을 조장할뿐이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에 대해 떠들기전에 속에 품은 칼부터 버려야 하며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남관계개선은 당면한 중대사이다. 그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다.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손을 맞잡고나갈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하면서 외세와 결탁하여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운명을 해치려는자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해나갈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버리고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박 철 준

핵공조구걸병자의 역겨운 추태

남조선외교부 장관 윤병세의 교질적인 구걸병이 또다시 발작하였다. 며칠전 룩셈부르그에서 열린 어느 한 국제회의장에 코를 들이민 윤병세는 《이 순간에도 북은 핵, 미싸일능력을 고도화》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북핵불용이라는 일관된 메쎄지를 보내야 한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떠들어댔다. 며칠후에는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를 행각하며 《북핵문제해결에 긍정적영향》을 주기를 바란다느니, 《북이 교훈을 얻기 바란다.》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윤병세가 하루라도 헤픈 입을 나불거리며 동족을 걸고들지 않으면 몸살을 앓는자라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그 무슨 《북핵문제의 시급성》이라는 간판을 들려메고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외세를 찾아다니며 꺼져가는 반공화국핵소동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모지름을 쓰는 이자의 주제넘은 처사는 실로 분격을 자아낸다. 이번에 윤병세가 또다시 해외를 행각하며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고 반공화국핵공조를 비럭질한것은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과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자의 무지막지한 추태이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복잡성과 장애만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눈먼 망아지 워낭소리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핵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일가견도 없이 미국상전의 반공화국핵소동에 덮어놓고 추종하는 윤병세의 꼬락서니는 신통히도 눈먼 망아지를 방불케 한다. 이런 암둔하고 리성없는자가 남조선 외교부의 우두머리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윤병세는 이제라도 화석처럼 굳어져있는 머리에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 리유와 그 력사적과정, 조선반도비핵화의 선행공정에 대해 똑똑히 쪼아박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철두철미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위험한 핵위협소동에 의해 발생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해마다 핵전쟁연습을 년례행사처럼 광란적으로 벌린 바로 이것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킨 출발점이다. 남조선을 북침을 위한 거대한 핵전초기지로 만든 내외호전광들은 우리를 겨냥한 모험적인 핵선제공격각본들을 짜놓고 그 실행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47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4D작전계획》의 수립을 공표하고 그것을 《작전계획 5015》에 반영하기로 한것은 우리에 대한 핵공격위협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선후차가 있는 법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자면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핵공갈정책과 북침전쟁도발책동부터 끝장내야 한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백배, 천배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그 누구의 압력이나 회유, 그 어떤 제재에도 흔들림수 없다.

윤병세는 이번 행각길에서 북남관계문제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를 분주히 찾아다니며 《북핵포기》실현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공조를 애걸하는것은 오히려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핵문제와 아무런 상판도 없는 북남관계문제를 서로 결부시키면서 핵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남북관계개선에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고 떠들고있다. 그리고 《선핵포기》야망을 한사코 실현하기 위해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의 맨 앞장에서 날뛰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를 택하면서 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소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북핵문제》를 떠들며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소동에 광분하는것이 북남관계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거기에 넘을수 없는 장애를 조성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반공화국핵공조구걸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심 철 영

반인륜범죄는 지워버릴수 없다

오늘 일본에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 범죄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괴이한 소동이 벌어지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제편에서 련일 여론전을 펴고있는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일본수상 하또야마는 현 집권자와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를 강하게 추궁하였다. 그는 식민지지배의 책임을 언급한 일본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며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집권자의 전후 70년 담화는 납득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전 수상 무라야마도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립장에 있다.》, 《지난 8월 집권자의 담화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의 인식이 빠졌다.》, 《수상으로서의 〈나〉는 들어있지 않다. 담화를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하면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죄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더러운 침략력사와 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요술을 부리는 현 당국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에 대한 응당한 비난이다.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올해에 세계는 지난 세기 침략전쟁과 군사적강점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이 살륙과 파괴, 략탈로 얼룩진 범죄력사를 심각히 돌이켜보고 그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태도는 파연 어떠한가.

파기력사를 뒤집어엎기 위한 행위들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현 집권자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담화》에 후안무치하게도 《전쟁과 관련이 없는 전후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떠벌이면서 파거사에 대한 사죄가 더는 없다는 립장을 뻐젓이 담았다. 일본외무성은 그 《담화》의 내용을 반영한다며 자기 홈페지의 《력사문제》항목을 삭제하고 《력사문제질문과 답》이라는 항목을 새로 개설하여 공개하였는데 거기에는 파거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하였다는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여있다. 이것은 죄악의 력사를 아예 지워버리려는것이 다름아닌 현 집권자의 《담화》발표목적이였으며 일본정부의 립장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지난날 전대미문의 침략과 식민지파쑈통치로 조선인민에게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들씌운 일본은 마땅히 우리 인민에게 사죄했어야 했다. 일본의 파거범죄 특히 성노예범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로서 백번 사죄한다 한들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사죄는 고사하고 피비린 범죄력사를 감추어보려고 치졸하게 놀아대고있다.

력사외곡책동에 환장한 나머지 국제사회가 저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경망스럽게 놀아대는 사무라이족속들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일본의 파거범죄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력사의 흑막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이 죄많은 파거를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버릴수 있으리라고 타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짓이다.

우리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일제의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이 파거죄악을 숨기려는것은 교립과 파멸에로 가는 길이다.

일본당국은 그 어떤 권모술수로도 파거범죄를 미화할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모든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전체 조선인민이 납득할수 있게 배상하여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사대굴종행위, 력사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조선의 경상남도지역 단체들이 규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경남진보련합을 비롯한 경상남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0월 29일 경상남도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들은 얼마전 남조선일본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이 《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동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굴욕도 이런 굴욕이 어디 있는가고 개탄하였다.

침략자, 전범국가의 우두머리가 저들땅도 아닌 이 땅에서 감히 그따위 망발을 늘어놓았는데도 국방부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대신 《그런 말이 없었다.》고 진실감추기에 급급하고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이것은 미국, 일본파의 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현 《정권》의 굴욕외교가 낳은 대참사라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이번 행위는 초보적인 자존심마저 찾아볼수 없는 굴욕행위이고 파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군국주의부활철회를 요구하는 절대다수의 민중에게 치욕을 안기는 행위라고 하면서 반민족적행위를 일삼는 《정부》가 수치스럽다고 단죄하였다.

친일파《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민중이 궐기해나설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28일 부산녀성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성노예문제를 비롯하여 파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는 일본파의 굴욕적인 회담에 열을 올리고있는 당국을 규탄하였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가 주장

력사교과서《국정화》는 결코 민중통합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비난하였다.

《국정교과서》는 옳바른 교과서가 아니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력사교과서문제를 둘러싼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이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던것처럼 오늘 현 《정부》의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강조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3일 성명을 발표하여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강행한 당국의 반민주적폭거, 력사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절대다수 민중의 반대와 각계의 투쟁을 깡그리 묵살하고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강행한 현 《정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력사와 민중은 기억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 《정권》은 처음부터 민중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온갖 궤변과 외곡으로 《국정화》에 대해 강변하고 《색갈론》을 들고나와 민중을 위협하였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민중의 반대에는 귀를 막고 정해진 절차조차 무시해버린 당국의 권력행사,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더우기 당국이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고 하면서 교과서집필을 위한 비밀조직을 몰래 만들어 운영하고 자금을 빼내여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위한 선전과 여론조작에 열을 올렸다고 단죄하였다.

민중은 현 《정부》의 폭거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것이며 독재시대에로의 회귀인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남조선언론이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5일 《비밀조직도 모자라 집필진마저 숨기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집필진을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것은 밀실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정화》추진조직자체를 비밀리에 꾸린 《정부》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것은 응당하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력사학계와 교육계의 절대다수가 《국정교과서》집필거부를 선언한 조건에서 집필에 응할 대상은 친일파 독재를 미화하는데 이골이 난 신보수세력뿐이라고 까밝혔다.

집필진공개를 회피하고 밀실에서 작업을 해놓고는 교과서심의를 어물쩍 넘기려는것이 당국의 속심이라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비밀조직으로 시작된 《국정화》가 밀실편찬으로 이어지고 날치기발간으로 귀결되는것은 필연이라고 강조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불보듯 뻔하다고 사설은 조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민주청년련맹 제19차대회 진행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지배주의책동 단죄

【아바나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세계민주청년련맹 제19차대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꾸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비롯한 36개 나라 청년학생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연설들이 있었다.

련맹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심각한 정치경제적혼란이 지속되고있으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시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전쟁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악화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련맹의 모든 조직들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꾸바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위원회 제1비서는 제국주의는 세계 진보적인류와 청년들의 공동의 원쑤이라고 하면서 본대회가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련맹이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반제투쟁의 주도적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평화리사회 집행서기는 세계의 평화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도구로 리용되고있는데 대해 폭로단죄하였다.

미국의 강권과 지배주의책동, 나토의 군사적위협을 허용하는 이중기준이 란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조선을 비롯한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제재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유엔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반제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반미강경자세를 고수해나가는 이란

이란이 반미강경자세를 고수해나가고있다.

지난 4일 이란의 수도에서는 미국대사관점거투쟁 36돐에 즈음하여 반미집회가 벌어졌다. 이전 미국대사관건물앞에서 벌어진 집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반미구호들을 웨치며 미국대사관이 간첩소굴이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은 거대한 악마이며 오만한 세력과의 싸움은 정당한것이라고 하면서 전세대의 투쟁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는 어느 한 연설에서 1979년 11월에 있은 자국주재 미국대사관점거사건이 이란에서 정치적발전과 독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계기로 되였다, 미국대사관점거로 나라의 독립과 오만한 렬강을 반대하는 투쟁의 기초가 마련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코메이니의 지시에 따라 단행된 미국대사관점거는 두번째 혁명으로 간주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이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는 미국대사관점거사건은 어떻게 되여 발생하게 되였는가.

1979년 2월 이란인민은 친미반동적인 파호라비황제정권을 뒤집어엎고 이슬람교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승리후 이란은 미제의 경제적특권과 독점적지배를 폐지하고 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미국기자들을 추방하는 등 반제반미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의 승리를 압살하기 위하여 미국은 외국으로 도망친 파호라비를 미국에 끌어들이고 《인도주의》를 빗대고 보호하면서 그를 넘겨줄데 대한 이란의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이란과 미국사이의 판계는 더욱 긴장해지고 이란인민의 반미감정은 거세여졌다.

1979년 11월 4일 오전 수도 테헤란에서 대중적인 반미시위를 벌리던 500여명의 대학생들은 미국대사관을 들이치고 거기에 있던 외교관 수십명 전원을 볼잡아 구류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 이란외무성은 《이 사건은 이란인민의 반미감정을 반영하고있다.》, 《미국대사관은 간첩소굴이며 지금까지 이란인민의 리익을 해친 수많은 음모가 꾸며진 소굴》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대학생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정부가 항의각서를 보내여 대사관의 모든 인원들을 석방할것을 강박했으나 이란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국제여론은 떠들썩하였고 세계의 통신, 신문, 방송, TV에서는 이 사건이 련일 보도되였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푸른 불꽃작전》이라는 《인질구출작전》까지 벌렸으나 인질구출은커녕 제편을 황천객으로 보내는것으로 끝나 실패하고말았다.

그후 미국은 깡패들을 들이밀어 이란내부를 혼란시키려는 책동을 벌리는 한편 페르샤만과 아라비아해주변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켜 무력공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군사적위협과 공갈도 이란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1981년 1월 미제는 마침내 이란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테헤란에서 쫓겨나고말았다.

미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이란은 해마다 미국대사관이 점거된 날을 세계의 오만한 렬강을 반대하는 민족의 날로 기념하고있다.

반미투쟁에서 견지한 강경한 자세와 립장은 승리의 기본열쇠였다.

이러한 자세와 립장은 오늘도 고수되고있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는 이란인민에 대한 미국의 적대행위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직 자기들의 행위를 미화분식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목적은 자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자기들의 정책을 가리우기 위한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란민방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테로단체들을 지원하고 중동지역에서 대리전쟁들을 벌리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목적은 바로 이란의 내부에 불안정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반미강경자세와 립장은 이번에 진행된 반미집회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과 서방의 침투책동에 대해 경고하면서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웨치였으며 미국을 믿지 말것을 강하게 요구해나섰다.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이란무장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소한 적대적움직임에도 강력한 반타격을 가할수 있도록 언제나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그 어떤 회유기만과 감언리설로도 침략적인 외세를 반대하고 자주권수호에 떨쳐나선 이란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

더욱더 굳세여지는 이란의 립장은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침략적목적을 달성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오만한 책동이 더는 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반미강경자세를 고수하여 자주권을 수호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려는 이란정부와 인민의 투쟁은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김 국 철

앙골라에서 독립절 기념

앙골라에서 11일 독립 40돐을 기념하였다.

수도 루안다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되였다.

앙골라대통령 쥬제 에두아르두 두스 싼뚜스가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과 대표들이 행사에 초대되였다.

행사에서 연설한 앙골라대통령은 전체 인민이 단합하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쟁취한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날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서도 시위와 집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브라질의 농업발전노력

브라질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에서 우량품종작물과 생물기술, 병해충방지 등에 대한 연구를 다그치고있다.

또한 농업을 생태환경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농업부문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나라의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탕수수, 콩 등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인종주의반대시위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9일 인종주의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최근 미주리대학에서 흑인학생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데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흑인학생들을 차별하는 대학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프랑스에서 반인종주의시위

인디아에서 탄도미싸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9일 동부오리싸주앞바다에 있는 시험장에서 자체로 개발한 《아그니-4》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이 미싸일의 길이는 20m, 무게는 17t이며 사거리는 4 000㎞에 달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51180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